



HOME > 농업/생활정보

농어촌공사, 서울서 지역 먹거리 홍보

윤 이관용 기자 | ⌚ 승인 2022.10.24 11:08 | 📄 호수 1465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 성공적 추진 목적

한국농어촌공사 청양지사(지사장 김남표)는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서울시 안국역 주변 상생상회에서 청양군 먹거리와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홍보했다.

농어촌공사는 2019년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들어갔고 올해부터는 세부설계와 역량강화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예산 180억 원을 들여 '미식'이라는 주제로 유희시설인 고추문화마을을 재단장하게 된다.

새롭게 바뀌는 고추문화마을에는 지역 내 다양한 공동체들의 활동공간을 마련, 외부 방문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다.

농어촌공사는 기존 시설운영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사업추진 단계에서부터 조성단지 및 청양군을 홍보하고 있다. 또 외지인들을 대상으로 지역 관광·체험·생산물 등을 판매해 청양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하는 관계 인구확보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서울 홍보기간 2000여 명의 도시민이 방문해 843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청양가을밥상으로 준비한 도시락 메뉴는 오전 출근시간에 매진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이는 상생상회에서 추진한 타 기획전 평균수치보다 방문자 수는 800명, 매출액은 200~300만 원이 많은 성과를 거뒀다.

먹거리 판매에 참여한 지역민들도 실적이 좋아 앞으로 추가 참여가 기대되는 상황.

한편 농어촌공사는 이달 중 청양군 휴양랜드에서 1박 2일 '미식'축제를 열어 먹거리와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 조성사업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군민과 방문객들의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사업에 반영함으로써 성공적인 시설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청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관용 기자